

'불교저널' 창간호 주요내용

유럽 특히 불교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프랑스의 불교현황은 어떠한가. 승정이 뇌물수수 스캔들을 일으키는 등 태국 불교계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무엇인가. 인간복제, 과연 일족다 다족의 화염적 연기사상의 구현인가 반연기적 재앙인가.

월간 <불교저널> 창간호가 특집으로 마련한 프랑스에 부는 불교바람과 태국불교계의 위기, 인간복제에 대한 불교의 입장 등을 발췌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 프랑스에 부는 불교바람

'불교의 현대성과 그 가치에 매혹되는 프랑스인들'을 기고한 프레데리 르노와르(철학자)는 "프랑스 불교신자는 대략 30세~45세의 도시에 사는 고학력 자여서 간부급이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며 "프랑스 불교협회와 내부부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프랑스 불교신자는 60만명으로 이중 절반이 프랑스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18세이상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종교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5%에 해당하는 2백만 명이 '불교'라고 답했고 15%인 6백만명이 불교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에는 수백 개의 선불교센터와 티벳불교관련 명상센터가 있다. 르노와르는 불교가 유럽 특히 프랑스인에게 매력있게 보이는 이유로 기독교가 내세우는 유일신 사상과는 전혀 다른 종교이기 때문이라고 결론 지었다.

■ 위기에 빠진 태국불교

최근 몇 년간 태국불교 승정 담마차요가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스캔들을 휩싸이는 등 태국불교계가 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태국에서 출가한지 10년이 넘는 미국인 승려 산티카로는 담마차요 스님에 관한 추문은 태국승가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지만 대다수 불자들은 사태의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또 태국승가장이 지경이 되어버린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간섭, 봉건제도, 관료화, 일로스님들의 여성차별, 힘있는 자의 권위주의와 고승스님들의 고풍, 조직력의 결여,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제도, 황금만능주의,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성직매매 등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런 현실을 타계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은 시골의 한 귀퉁이에서 불교계의 이러한 문제들과 과감히 맞부딪고 있는 진보된 스님들 속에서 찾아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담마차요의 엄청난 재산과 비행들에 관한 논쟁은 급속한 산업화와 갑작스런 경제 붕괴로 흔들리고 있는 태국불교계에 정신적인 위기를 불러왔다. 지금 태국불교는 기성불교와 새롭게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신진세력이 절체하게 대립하고 있다.

■ 인간복제, 불교의 입장

호진스님(동국대 교수)은 "불교는 인간복제 문제 앞에서 표면상으로는 다른 종교에서보다 덜 당황하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다만 불교의 핵심사상인 윤회와 업사상이 인간복제 이론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 스님은 행한대로 그 결과를 받는 업의 논리가 유전자조작으로 인해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닌 타자의 뜻에 의해 사전에 계획되고 수정될 수 있어 업의 존립 근거 자체가 없어진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업의 존립근거가 없어지면 그 영향은 윤회사상과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까지 미친다. 종교나 철학은 현실을 직시하고 시대를 인도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설명과 이론·윤리·가치관 등을 개발하거나 시대에 순응하면서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 호진스님은 "불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소재를 찾는 것인데 아직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한 것이 불교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연 기자

불교관련 논문 주제 다양

동국대 정신문화원 98년 후기 석·박사 논문 분석

논리학·정신건강·영화·장묘제도 등 다뤄

동국대학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 1998년 후기 불교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경향은 교리·철학은 물론 논리학, 청소년 정신건강, 불교음악, 영화, 장묘제도에 이르기까지 주제의 폭이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서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환경요인과 복지지원체계에 관한 연구'로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각진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의 논문은 요즘 한창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요인을 만들어주어야 하는가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각진스님은 불교등 종교계는 사실 사상 인적자원 등을 청소년을 위해 활용해야 하고 청소년 복지를 위한 대통령직속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복지정책은 21세기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현실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정책의 중요과제는 물질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까지 청소년 전체를 위한 복지정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박사 <동국대학교>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환경요인과 복지지원체계에 관한 연구-각진스님 △불교음악의 정태와 한국적 전개에 관한 연구-박명훈 △선대의 원동지 연구-오지연 △불교논리학의 성립과 전통 연구-김치은 △승소의 연구-김주경 △불교사회복지사상과 실천 체계에 관한 연구-권정림 △경허·만공의 선사상 연구-역승산 △형상을 중심으로-태진스님 △고대 중국불교 장신구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정찬범 △인도 중국 한국의 고대불교사상에 관한 연구-최영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선문양의 탈근대 교육적 독해-서명석 △근세의 화엄일승의 연구-근기훈을 중심으로-김전학 ▲석사 <동국대학교> △도자의 정토사



◇각진스님



◇박명훈교수



◇서명석씨

지적했다. 특히 변화하는 청소년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실증분석과 복지지원 실태분석을 토대로 한 복지지원정책이 실시되도록 정부는 청소년 정신건강을 최우선 국가전략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문양의 탈근대 교육적 독해'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서명석씨는 근대교육의 허구적 실상을 날카롭게 꼬집으면서 이를 넘어서는 교육의 담론으로 선문당을 주목했다. 내용중심주의에 사로잡힌 근대교육을 극복하는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선문당을 내세운 것이다. 서씨는 "선문당의 형태를 갖추면서 교육의 장르로 성립되었기에 교육학

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근대교육은 마음 밖의 공부영역으로(理學), 선문당은 마음 안의 공부 영역만으로 구성되어 있다(心學). 교육이란 궁극적으로 이학과 심학의 대대적 통합일 수밖에 없다"고 잘못된 근대교육 바로 세우기를 제안했다. '불교음악의 전래와 한국적 전개'를 고찰한 박명훈 교수(중앙대)의 논문은 불교음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불교음악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인도에서부터 중국을 거쳐 한국에 이르는 불교음악의 변천과정과 한국화를 약보까지 곁들여 정리했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불교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상 연구-안학립을 중심으로-이해선 △근대 일본불교의 한국내 활동과 그 영향-김원정 △불타의 사념처론 연구-김유대 △대승기신론의 불생불멸론 연구-김유란 △간화선의 무사공안 연구-김정숙 △선과 상담심리치료의 비교 연구-유미경 △유식사상의 식개념 고찰-유식30송을 중심으로-하영진 △디그나기의 직지직각과 자기인식에 대한 연구-김정환 <직지직각>을 중심으로-배재현 △'선의 미학'으로 살펴본 한국영화 미학-'만다라' '달마'를 중심으로-김재현 △'선'의 미학-이윤희 △조계종 전통강원의 교육체계에

대한 철학적 고찰-고과목형성과정을 중심으로-이성수 △근세의 화엄사상 연구-조동근 △스그리스도교와 불교간의 대화와 화해, 일치를 위한 연구-다식 유영모의 교대원주의 사상을 중심으로-방상복 △도선국사의 선사상 연구-박성만 △불교 아동복지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용경 △경향과 총기 오·남용 방지에 관한 연구-불교의 자비사상 구현을 위한 일교-이희경 △한국 장묘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이상호 △'법화경'의 복지사상 연구-류순백 △국보 196호 신라 벽화에서 대방광불화엄경의 일연구-표지화변상도를 중심으로-조경실 △만해 시의 '남'에 대한 연구-불교사상을 중심으로-지거스님

영역 '원효전서' 내년 2월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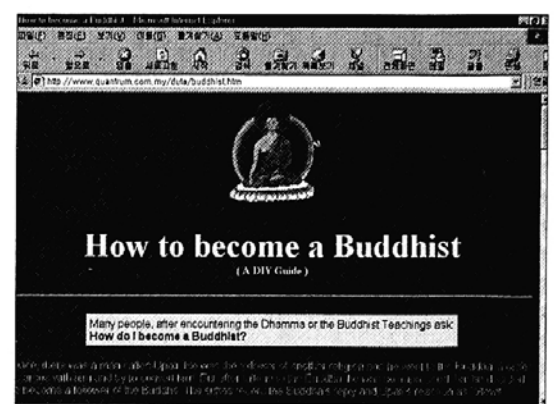
국제원효학회, '금강삼매경론' 등 5권 구성

텍스트 분류방식과 한국어 영자 표기법 등을 통일해 영역한 <원효전서> 영역본 5권이 내년 2월 발간된다. 국제원효학회(공동회장 송석구 동국대총장)는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미국 뉴욕 스토니브룩대학에서 송석구 총장(동국대), 김용표 교수(동국대), 로버트 버스웰 교수(UCLA)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효전서 영역 편집자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종 편집 규정과 영역 예규를 점검했다. 이번이 결정된 편집안을 골자로 번

역과 편집이 진행 중인 영역본 <원효전서>는 1권에 <금강삼매경론>, 2권에 <대승기신론회본>, 3권에 <이장의> <중년분별론소> <관비량론> <심문화쟁론>, 4권에 <열반종요> <대혜도경종교> <법화종요> <화엄경소> <본업경소> <해심밀경소>, 5권에 <무량수경종요> <유심안락도> <불설아미타경소> <미륵상생경종요> 등으로 구성된다. 번역 작업에는 로버트 버스웰 교수 박사배 교수 찰스 물러 교수 등이 참가하고 있다.

9회 가산 학술상 공모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제9회 가산학술상을 22일까지 공모한다. 대상은 박사학위수지자로 불교학 및 관련 연구자에 한한다. 중장기 연구계획서 발표논문 및 저술 각1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추천서 2부 등이 필요하다. 학술상 수상자는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위촉되는 동시에 학술프로젝트 및 교육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다. 또 연구비 지급과 더불어 불교대사전편찬 및 가산학보 편집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된다. (02) 765-9602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자가 되는 길

서양인의 발심·귀의·수행 엿보기
영역본 금강경·명상음악 등 소개

동·서양인의 '불교귀의'와 '수행'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중국계 미국인 로버트 유반(49)이 개설한 '불자가 되는 길(How to become a Buddhist)'은 서양인의 발심과 귀의 그리고 수행을 엿볼 수 있는 사이트.

이 사이트에서 유반은 불자의 첫 길을 '귀의'로 설명해 놓고, 'DIY(Do It Yourself)' '스스로 하라' 메뉴를 개설해 놓았다. 이 메뉴에서는 <아함경>에서 '불자의 의미'에 대해 우팔리가 부처님께 물고, 불자의 미덕을 깨닫는 내용을 영역한 글을 읽을 수 있다. 또 서양인의 초발심과 불·법·승에 귀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사성제의 '팔정도'를 불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고 있다.

또 이 사이트에는 '공부하기'라는 메뉴도 개설돼있는데, 여기에는 '현명한 질문과 대답' 불자의 믿음이라는 것' '재가불자를 위한 경전 강독' 등 초심자의 심신을 다지는 글들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부처님의 가르침' '내면으로' 등 기성 불자들에게 유익한 글도 추천하고 있으며, 명상법을 소개하는 '상좌부불교 수행'도 소개되어 있다.

이 가운데 남방의 고승으로 존경받고 있는 스리 담마난다(Ven. Sri Dhammanta) 스님은 쓴 '불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스님의 법문 가운데 일반 수행자가 꼭 체득해야 할 덕목들을 모아 놓은 글. 영리한 불법, 인류를 위한 도덕, 삶과 문화, 존재의 한계, 본법심과 꿈 등 총

17장으로 구성됐다. 또 '재가불자를 위한 경전 강독'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전인 <금강반야바라밀경>(이하 금강경)의 영역본을 읽을 수 있다. 유반은 이 메뉴에서 <금강경>이 6조 혜능 이래로 불교의 주요 경전으로 떠오른 배경과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 데, 혜능(慧能)이 어느날 <금강경>을 읽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라는 대목에서 홀연히 깨달았다는 일화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유반은 또 '심우도' 메뉴도 개설해 놓았다. 심우도는 1953년 미국의 드블스 출판사에서 첫 발간한 이래, 미국인 불자들에게 발심, 귀의 그리고 수행의 진정한 여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메뉴에서 제공하는 '심우도'는 12세기경 중국의 가관스님이 화록에 담고 그 경계를 설명한 것을, 미국의 관화가 P.립스가 번역한 것.

팔리어를 배우고 불교 및 명상음악을 듣거나 화두를 들 수 있는 메뉴도 개설해 놓았다. '음악' 메뉴에서는 총 20여곡의 음악이 소개되는데, 불교음악에 관심있는 불자 네티즌들이 방문해 볼지하다. 또 <법구경> 방문 강독을 토대로 팔리어의 어휘, 문법, 어구 등을 익힐 수 있다. '화두' 메뉴에는 중국의 14세기 임제종 스님들의 대중적인 화두였던 '황소가 외양간을 등지다'를 비롯 10여개 화두를 동시대 불자네티즌에게 띄워놓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사이트 주소는 http://www.quantum.com.my/duta/buddhist.htm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 최근 출판계 가히 한국관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부어 출판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중덕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물음, 너는 누구냐'는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실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정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범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설우재 기자)

한형조 지음/ 66 변형 34쪽 / 값 6000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주머니 속 대장경 303 - 선(禪) 아시아문은 "물든 바, 흰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